

종교·복지

■ '금강산질대법회'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대중 없으면 종교도 없어”

통명한 듯 들리는 “밥 먹나(먹었느냐)?”라는 말에도 정이 배어있었다. 8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조계종립 송광사(松廣寺)의 큰 방장(方丈) 보성 스님(78·사진)은 권위보다는 소탈함이 느껴지는 노스님이었다. 세월의 흐름은 속일 수 없어 거동은 조금 불편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 있었다.

세도 일반 대중들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어야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조율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 거지.”

이날 법문에서 비삼(毗曇)보다 독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일갈한 스님은 “집착의 노예”에서 벗어날 것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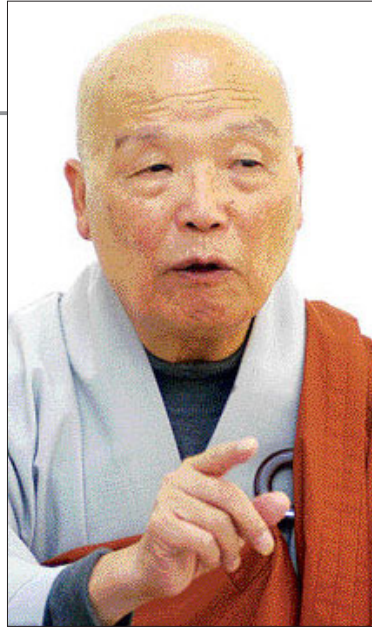
하게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노력’과 ‘인내’였다. “현대인들은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 까 요행병에 걸렸어. 노력이나 인내와 같은 진실한 가치들은 외면하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영리하지만 진실을 알 아내는 것이 어려워.”

세상 모든 갈등 편가름에서 비롯 짐착 벗어나 자연의 순리 따라야

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성 스님은 이날도 송광사가 봉행하는 ‘금강산질대법회’(11월8일~12월 27일)에서 법문을 설파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보성 스님을 시작으로 매주 법문에 능통한 스님들이 불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金剛經)을 강의한다. 이처럼 불자의 수행을 강조했던 불교가 ‘대중’에게도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많아진 것에 대해 스님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종교는 종교이기 전에 강한 인간성을 가져야지. 대중이 없으면 종교도 없어. 중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조했다. “지금 산 좀 봐봐. 알록달록하니 포장이 잘 되었는지? 하지만 겨울이 되면 도로 옆에 유령한 드레 식 사막이, 여성 영성에 관한 노래로 영성의 회복과 치유적 작업을 해 온 제니퍼 베레잔 등 세계적인 여성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 인도 반수리(대나무로 만든 인

도를 진통 약기) 최고의 명인 하리프라사드 수석제자로 인도 반수리 쿤쿠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밀린드 인도 타악기에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가진 넬레쉬 란디베, 몽골 공훈가수 아일비쉬 네투구이, 일본 음악가 마즈다 세이잔과 요시다 다카히로 등이 참여한다. 한국



를 구분 짓지 말 것을 강조했다. 종교 역시 인간을 파고들어간다는 점에서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종교 구분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방장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했으며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1997년 조계총림 제5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불교계를 위해 애진하고 있다.

/순천=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교 단신

무등사회복지관 재미장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마트앤마트 두암점에서 재미장터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시장경제 체험과 나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 버러시장’ ‘장기자랑’ ‘경계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복지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68-0093

광주가톨릭합창단 발표회

○광주가톨릭 합창단이 13일 오후 7시 30분 5·18기념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정기 발표회를 갖는다.

순교자 현양사업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공연은 ‘키리에 글로리아’ ‘쌍투스’ ‘베네딕투스’ ‘아누스데이’ 등 미사곡과 퀘플트, 오페라, 기타 연주곡 공연된다. 살레시오 수녀회도 찬조출연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온 땅에 기쁜 소식 외쳐라’ 등을 들려준다.

티켓은 각 분당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7천원. 문의 062-513-3326

故 정규오 목사 추모 강좌

○지난 1월 19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한 광주중앙교회 해원(海園) 정규오 목사를 추모하는 강좌가 열린다.

해원기념사업회는 14일 오전 10시 40분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배실에서 ‘제1회 해원 기념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정규오 목사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계승해 개신교계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해원 정규오 목사의 생애와 신학사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예정함동 총회장이장차 남 목사(부산 온천제일교회)가 정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062-605-1013

종교 칼럼



최도웅

할머니 손은 약손

머칠 전 익산에 다녀왔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늦가을의 들녘은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에 답례라도 하는 듯, 지푸라기만을 덩그러니 남겨놓았다. 이를 뚝간 갈나무에는 빠알간 감이 땀글땀글 달려있다. 보는 이의 얼굴에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래, 풍요로운 가을이었어?” 상념에 잠겨 늦가을의 정취를 음미하였다. 즐거운 마음을 알아주리라도 하듯 버스는 신나게 달렸다. 어디에선가 차의 속력이 줄어들고, 급기야 멈추게 되었다. 예전

에는 이럴 때 ‘사고가 났나? 어디 공사를 하는 중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막히는 군.’ 이렇게 생각한다. 휴일이면 겪게 되는 모습이 일상의 일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차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잠긴다. 어린 시절 차가운 바람이 불 때면 곧잘 채하곤 했던 나에게 할머니께서는 배를 쓸어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나아라 나아라. 내 손이 약손이다. 썩속 내려가라.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시는 소리에 어느새 잠이 들었고, 일어나보면, 신기하리만치 배는 다 나아있었다. 갈수록 반복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할머니 손이 약손이구나”라는 믿음은 하늘 끝까지 달

았다. 임들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을 넘었다. 바람도 제법 쌀쌀하게 불고, 하늘의 높이도 멀게만 보인다. 겨울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뭉개뭉개 몸을 움츠러들게 한다. 모두가 움츠러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사는 지구마을에 흑구간 구간 막히어 소통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돌아본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곳곳에 흑구간이 숨어 있고 통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체감하지 못하는 체증이 깊어가지는 않는지 들여다본다. 그러한 곳에 어린시절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감탄하던 그 손길을 건네 보자.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 모든 생명들을 건넌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듯이, 우리 모두가 ‘할머니 손은 약손’ 이 되기를 염원해본다. 이 겨울에!

(원불교 광주·전남시무국 교수)

화엄사 국제 영성음악제

16~18일 ‘화엄제 2006’

세계적 영성 가수 공연

구례 화엄사가 오는 16~18일 화엄사 및 지리산 일대에서 국제 영성음악제인 ‘화엄제 2006’을 개최한다. ‘첫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영성제에는 세계 각국의 영성음악가들이 모여 국내 최초의 영성음악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성’은 인간 사회

를 살아가는 지혜를 기도와 성찰을 통해 살피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음악을 통해 영성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영성 가수들도 화엄사를 찾는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 세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래 활동으로 유명한 드레 식 사막이, 여성 영성에 관한 노래로 영성의 회복과 치유적 작업을 해 온 제니퍼 베레잔 등 세계적인 여성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 인도 반수리(대나무로 만든 인



드레 식 사막이



제니퍼 베레잔



밀린드 다테

도의 율도뮤직 그룹인 ‘푸리’와 음악극 집단 ‘바람꽃’의 무대도 마련됐다. 한편 음악제는 16일 오후 5시 순천대 지리산 수련관, 17일 오후 7시 천은사, 18일 오후 3시 화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문의 02-745-6112, 061-782-7600 /곽선정기자 ks@

www.megabox.co.kr

영화안니 - 영화안니 더 재미있는 영화관

메가박스 - 구.련연국사거리

엔터 시네마 - 흥행로 57가

컬롬버스 시네마 - 하남점

영화안니 - 영화안니 더 재미있는 영화관

영화안니 - 영화안니 더 재미있는 영화관

영화안니 - 영화안니 더 재미있는 영화관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372-4585

금보부동산컨설팅 - (02)261-8940

믿음공인중개사 - (02)371-4911

법원평가 GG속성 광주3대개사

금원공인중개사 - (02)011-9600-4563

대인부동산컨설팅 - (02)11-625-0510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 (02)233-9311-3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 (02)22-8446